

올세계농사... 최대凶作 예상

—◇—開途國 경제타격 클 듯—◇—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한발지역이 속출하는 가운데 흉수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최근 북미지역을 휩쓴 심한 한발로 올 세계곡물생산은 1936년 이후 최악의 흉작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기름값인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세계곡물의 흉작으로 5년래 하곡생산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식량자급 문제는 심각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어느때보다도 증산과 소비절약시책이 요구되고 있다.

濠洲는 50년만이라는 한발이 닥쳐왔고 쌀 주산국인 泰國은 논밭이 갈라지고 아프리카의 사하라沙漠은 해마다 없어져가고 있다.

인도지나半島의 3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쌀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泰國은 예년 같으면 3백만톤의 쌀을 수출했으나 올해에는 2백 20만톤 수출이 고작일 것 같다.

세계의 쌀수출량은 1천만톤 내

외인데 泰國의 흉작으로 美國과 日本은 쌀수출을 둘러싸고 묘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濠洲의 경우 지난 4월말부터 5월에 약간의 비가 내렸지만 50년만의 한발현상을 보여 올해 밀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백만톤 정도가 감소한 1천2백만톤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南美 아르헨티나도 울들어서 가뭄이 계속, 밀·옥수수가 대폭 감소되고 값이 폭등하여 美시카고의 곡물시장에 가격양동을 몰아왔다. 이런 와중에 아르헨티나에는 5월들어 집중호우로 흉수거나 곡물창고들이 물에 잠겨 30만톤~50만톤의 곡물이 못쓰게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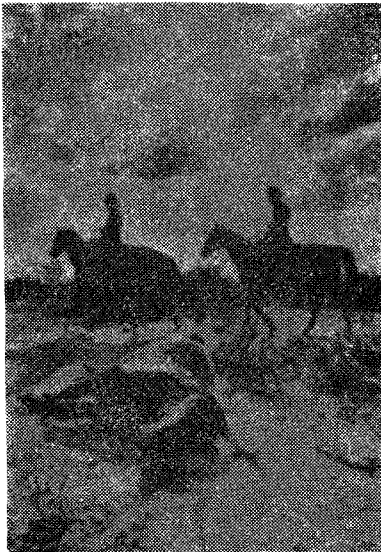
특히 北美남부지역을 엄습한혹서와 함께 세계 최대곡물산지인 美國과 「캐나다」를 휩쓸고 있는 한발은 1936년의 한발이후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한발이 더 지속될 경우 세계는 심각한 식량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곡

물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또 美國이 한발에 직면해있는 가운데 소련은 지나친 강우량으로 을작황이 순탄하지 못할것으로 보여 소련의 곡물수입량이 증가한다면 세계 곡물수급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의 경우도 「차드」에서 「소말리아」에 이르는 中西部 및 東部 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식량난이 심각하다.

특히 「차드」 「우간다」 등은 丙戰까지 겹쳐 굶어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것으로 外信은 전하고 있다.



◇ 미국 서남부지방을 휩쓴 열파로 인해 죽어나가 자빠진 텍사스산 긴뿔소의 잔해 곁을 두 목동이 지나쳐 가고 있다.

◇ 國際穀物價格動向

< FOB 기준,
단위 = 톤 / 달러 >

연 월	쌀	小麥	옥수수	大豆	
79.	1	266	140	110	274
	2	249	137	109	283
	3	263	138	112	295
	4	283	139	113	283
	5	309	148	126	287
	6	312	167	123	296
	7	312	178	135	303
	8	330	169	122	290
	9	347	165	121	280
	10	365	162	125	276
	11	358	158	122	264
	12	332	158	124	259
80.	1	344	161	115	251
	2	397	163	116	256
	3	426	156	114	241
	4	423	155	114	234
	5	414	167	113	234
	6	439	167	119	239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무려 20개국 이 식량부족국으로 유엔식량기구와 美國 등 선진국에 구호를 요청중인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계穀價는 이같은 우려를 반영하여 계속 세계시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으며 소련의 흉작까지 겹칠경우 견잡을수 없는 폭등세를 보일것으로 염려된다.

그러나 한발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구의 42%가 주식으로 하고 있는 소맥은 근 5천만톤의 재고량이 남아있어 심각한 부족상태의 위험은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인구증가에 비추어 불배 수요폭등을 감당키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 의지종합 >